“190조 퇴직연금 시장 잡아라”

광주은행 등 수수료 인하 내세워 고객 모시기 전쟁
수령 시기 늦추면 할인·사회 초년생 가입 깎아주기도

연말 정산을 앞두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퇴직연금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사들은 최근 앞다퉈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에 나서며 은퇴자금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5일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광주은행 등 12개 은행의 올 3분기 퇴직연금 적립금은 운용 주체가 기업인 확정급여형(DB)은 51조3145억원, 가입자가 운용 주체인 확정기여형(DC) 34조2833억원, 개인형 퇴직연금(IRP) 15조9437억원 등 총 101조5415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분기 적립금 87조2228억원 보다 16.4%(14조3187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11조8498억원)보다 34.5%(4조939억원)나 뛰었다. 증권사를 포함한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현재 190조원대로 불어났다.

지난 달 업계 1위 신한이 먼저 ‘손실 나면 수수료 면제’를 내걸고 나오자, 국민·우리·하나은행 등이 ‘연금 방식으로 수령 시 수수료 면제’ ‘사회초년생 할인’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으며 추격에 나섰다.

광주은행은 최근 퇴직연금 손실이 나면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달 29일부터 광주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고객 중 펀드운용 손실 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했다. 사회초년생인 만 34세 이하 청년층에게도 수수료를 70% 감면하고 연금 수령 시에도 수령 기간에 따른 수수료 50~80% 감면이 이뤄진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 50% 감면 대상을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도 퇴직연금 누적수익이 ‘0’ 이하인 고객에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국민은행의 퇴직연금 체계 개편안은 전체 적립금 손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대다수 금융기관은 손실이 나면 펀드에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B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에게 운용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계약 시점에 만 39세 이하인 고객은 운용관리 수수료를 평생 20% 할인받는다.

NH투자증권은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를 내걸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수수료율이 0.05%포인트, 확정급여형은 0.01~0.04%포인트 인하되며 확정기여형은 기존 수수료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강소기업에는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퇴직연금 신규 금액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 50% 이상을 생애주기펀드(TDF)로 선택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좌를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전 금액 100만원 미만은 1만 하나머니, 100만원 이상은 2만 하나머니를 지급한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3년간 50세 이상 장년층에 한해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간 납입금액 한도가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사들의 퇴직연금 수수료 혜택

광주	IRP 펀드운용 손실 때 수수료 감면 청년층 70% 감면 수령 시기 늦추면 50~80% 감면
신한국민	IRP 수익 안나면 수수료 면제
NH투자	고용부 인증 강소기업 수수료 절반
하나	IRP 19~34세 수수료 70% 인하

하나은행은 지난 6월 은행권 최초로 만 19~34세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를 70% 인하하고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는 고객들에 대해 수수료를 80%까지 줄였다.

김호준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세액공제 상품 가입으로 다가오는 연말정산에 대비하고, 노후 연금자산을 준비하는 고객들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개인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 -0.39%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3분기 12개 은행 가운데 광주·농협·하나·신한·우리·제주·경남을 제외한 5개 은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인형 수익률이 하락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60.74 (-8.15)	↑ 금리(국고채 3년)	1.42 (+0.02)
↓ 코스닥	617.60 (-7.67)	↓ 환율(USD)	1190.20 (-4.10)

광주은행, 순천대 발전기금 2000만원 전달

광주은행은 지난 4일 순천대학교에서 송종욱〈오른쪽〉 광주은행장과 고영진 순천대학교 총장 등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대학교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광주은행은 2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이는 전남 교육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해가고 있는 순천대학교의 발전이 바로 지역 경제 성장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순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함으로써 창의 인재 양성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우리지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키우고 설계해나갈 수 있도록 광주·전남의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인재육성에 힘쓰며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1990년 순천대학교에 첫 기탁을 시작한 후 매년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현재까지 총 4억50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학생을 선발해 대학 전까지 후원하는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보성 녹차·진도 민속문예·영암 무화과

전남 3곳 우수 지역특구 선정

중기부, 일자리 성과 인정

보성 녹차산업특구,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 영암 무화과산업특구 등 전남지역 3곳이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전북 김제시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2019년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보성 녹차산업특구 등 전남 3곳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역특구가 규제 특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지역특구는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특구 내 특화사업에만 완화하는 제도로, 규제 권한 이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2007년 9월 지정된 보성 녹차산업특구는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해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 보성녹차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보성군 실정에 맞게 정하고 녹차 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율포해수녹차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일자리를 지난 2016년 249명에서 지난해 499명으로 2배 확대했다.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는 2013년 8월 지정돼 민속문화 예술자원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특히 지난 2016년 4억원에 그쳤던 매출이 지난해 153억원으로 2년새 38배 이상 급증했다.

영암 무화과산업특구는 특화사업을 통해 무화과 유통 체계화로 농가 소득 증대했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 329억원이던 매출을 지난해 537억원으로 끌어올렸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벤처기업인들 “4차 산업혁명 선도”

벤처기업인의 밤 성료

광주·전남지역 벤처 및 ICT·SW 기업인 230여명이 지난 4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 4일 ‘2019 광주전남 벤처기업인 및 ICT/SW 기업인의 밤’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역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인, ICT/SW 기업인들의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사업발전 전략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나노기술원 김성수 실장이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맞춤형 R&D전략’을 주제로 기술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 선정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 메가존클라우드㈜ CSO 윤준선 상무는 ‘영화속의 미래가 온다! 4차산업혁명이 만드는 현실 속의 SF사회’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우수 벤처기업인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골든힐 한문철 대표이사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총 19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 금호피앤비화학 10억불 수출탑

한국알프스 4억불탑…마정락 세아엠앤에스 대표 금탑훈장

무역협회, 무역의 날 시상식

여수 금호피앤비화학이 수출 10억불탑을 수상했다. 광주 한국알프스는 4억불탑을, 해남 대한조선과 여수 세아엠앤에스는 3억불탑을 받았다.

수출에 기여한 세아엠앤에스 마정락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현대삼호중공업 강현진 부장은 동탑산업훈장, 대한조선 윤순신 팀장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대유글로벌 박건민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서암기계공업 권영호 대표이사와 임길택 상무이사, 삼각에프엠씨 김봉두 대표이사, 한국바스프 신상훈 팀장은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제56회 무역의 날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탑 시상과 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광주·전남지역 수출기업 총 50개사가 수출탑 수상을 했으며, 25개사 30명이 수출 진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마정락 대표이사

수상자전수식은 전남의 경우 오는 9일 오전 11시 목포현대호텔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광주는 12일 오전 11시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개최된다.

주동필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홍콩 시위사태 등으로 무역업계는 역대 가장 힘들었던 해였다”면서 “악조건에도 수출탑과 유공포상을 수상한 광주·전남지역 무역인들에게 존경과 함께 새 도약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